

무역금융 등 수출 인프라 보강, 수출 지역 및 품목 다변화 등 수출 활력 제고를 위해 범부처 총력 대응

-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 개최
 - 연내 최대 181조 무역·수출금융 공급
-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추진
- 연말까지 중국인 단체관광객 전자비자 발급 수수료 면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9.4(월) 08:00에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를 주재하여 ①수출 활성화를 위한 추가 지원방안, ②중국인 방한 관광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 참석자 : 경제부총리(주재), 과기부·문체부·농식품부·산업부·복지부·환경부·고용부·국토부·해수부·중기부·국조실·금융위·관세청 등 관계부처 장·차관

추 부총리는 최근 우리 경제는 월별 변동성은 있으나, 대체로 바닥을 다지면서 회복을 시작하는 초입 단계에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7월 산업활동의 경우 기상악화 등 일시적 요인으로 부진하였으나 수출 회복과 서비스업 개선 등이 지속되고 있고, 하반기 경기 반등의 핵심요소인 수출은 8월에 하계휴가 영향에도 불구하고 반도체를 중심으로 전월보다 감소폭이 크게 완화되었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무역수지도 수출의 완만한 반등과 함께 에너지 등 수입단가 안정으로 3개월 연속 흑자를 지속하는 등 당초 예상보다 양호한 흐름이고, 9월에는 무역수지 흑자기조 지속과 함께 수출 감소폭이 추가적으로 완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4분기 중에는 수출이 플러스 전환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하였습니다.

다만, 중국 경제상황 등 대외 여건 불확실성이 계속되고 있는 만큼, 향후 경제 흐름에 대한 과도한 비관이나 낙관을 경계하면서, 한시도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수출 회복 전환 국면(모멘텀) 강화와 외국인 국내관광 활성화를 통한 내수 진작에 범부처 정책역량을 집중하여 총력 지원해 나가겠다고 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우선, 무역금융을 연내 최대 181조원 공급하는 등 수출 기반(인프라) 지원을 추가 보강하고, 중동, 아세안 등으로 수출 지역을 다변화하는 한편,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에 대한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추진하는 등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에 속도를 높이겠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아울러, 케이(K)-관광 로드쇼 개최, 중국인 단체관광객 전자비자 발급 수수료 한시적 면제 등 중국인 방한 관광 활성화를 위한 방안도 신속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 ※ (별첨) 1. 경제부총리 모두발언
 2. 수출 활성화를 위한 추가 지원방안
 3. 중국인 방한 관광 활성화 방안

< 총 괄 >

담당 부서	정책조정국 정책조정총괄과	책임자	과 장	박재진 (044-215-4510)
		담당자	사무관	황인환 (044-215-4513)

< 안건별 담당자 >

[수출 활성화를 위한 추가 지원방안]

담당 부서	기획재정부 정책조정총괄과	책임자	과 장	박재진 (044-215-4510)
		담당자	사무관	김한필 (044-215-4512)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정책과	책임자	과 장	정상용 (044-203-4020)
		담당자	사무관	서두원 (044-203-4024)

[중국인 방한 관광 활성화 방안]

담당 부서	문화체육관광부 국제관광과	책임자	과 장	이혜림 (044-203-2831)
		담당자	사무관	윤지숙 (044-203-2829)
	기획재정부 서비스경제과	책임자	과 장	이근우 (044-215-4610)
		담당자	사무관	박홍희 (044-215-4611)
		담당자	사무관	박준석 (044-215-4613)